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1

제주의 산



제주에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울룩불룩 400여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

영봉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이어가다 산등성이에 생긴 봉우리가 아니기에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오름 寄生火山이라 부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뽕, 봉썰, 악썰이라 하지 않고 오름이라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이라 부르는 7대 산·5대 산이 있다.

7대 산은 한라산, 단산, 산방산, 송악산, 군산, 고근산, 영주산이며,

5대 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방산, 영주산, 청산(일출봉), 두리산이 그것이다.



한라산 漢拏山, 圓山, 鎮山, 釜嶽, 仙山, 頭無嶽, 瀛州山, 해발 1950m, 백록담

제주사람들에겐 신神이고 삶이라 할 수 있는 한라산. 탄생신화와 설화와 전설이 삶에 그대로 녹아있는 신령스러운 영산이다. 오르는 것은 물론 감히 우러러보는 것조차 경외시하는 한라산을 몰사람들은 등산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없이 거리낌 없이 덤빈다. 남한 최고봉 해발 1,950m, 면적 1,820km²의 순상화산桶狀火山인 한라산은 동서로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남북으로는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강산, 지리산과 함

께 전설상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리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은 정상에는 흰사슴이 물을 먹는 백록담白鹿潭이라는 화구호가 있고,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신비로운 영곡瀛谷과 산자락 곳곳에는 오름 또는 악이라 부르는 크고 작은 기생화산들이 빚어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한라산을 빼놓고는 제주도를 말할 수는 없다. 일상을 잠깐 접어두고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한라산의 품에 안겨보자. 성판악 탐방안내소 ↔ 진달래밭대피소 ↔ 동능정상·백록담 ↔ 삼각봉대피



소 ↔ 관음사탐방안내소(종주18.3km). 국립공원천연보호구역(천연 기념물 제182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을 마음과 몸과 자연이 하나 될 때 올라야 한다. 그때를 놓치면 언제 오르지 모르며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가자! 한라산으로.

가볍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계곡을 오르다 진땀 흘리며 영곡에 둘러앉고 싶은 영실등산로(윗세오름/3.7km), 철쭉·진달래밭 능선을 뒹굴어서라도 윗세오름까지 갈 것 같은 머리목등산로(윗세오름/4.7km), 자신과 싸우는 끝없는 고난·인내의 길 성판악등산로(동능정상/9.6km), 한라산등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관음사등산로(동능정상/8.7km), 치유하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온 한라산의 남문 돈내코등산로(남벽분기점/9.1km)를 통해 탐라계곡을 잉태한 장구목·삼각봉·왕관릉, 백록담 서벽을 에두르며 공굴차게 솟아 신들도 쉬어가고 오백장군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영실기암, 동남능선을 빨갛게 물들이는 한라산철쭉제에 흠뻑 빠지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한라산의 창조대모신 설문대할망의 사랑도 받아보자.



뚜벅이 516도로 성판악(181,182,281,282번)→탐방안내소/탐방로 9.6km
산록북로 관음사등산로입구(470번)→탐방안내소/탐방로 8.7km
승용차 성판악·관음사탐방안내소(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단산 單山, 높이 158m, 분화구침식

단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으로 거대한 박쥐[바곰지·바구미]가 날개를 편 모습 같고, 또는 대바구니 모양을 연상한다고 하여 굼지오름, 바곰지오름 또는 바구미오름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송악산, 산방산과 함께 개성 강한 산체이고 최근 들어 자주 외면당하는 거친 모습이지만 7대 산중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모습이다. 단산사입구(야자매트)-서쪽등성이빌레길-수폴등산길-서봉야자매트와 안전줄(갈림길)-억새·잡나무숲길-절벽길-동봉빌레길-덤불·소나무숲길-사계북로41번길로 통하는 험한 정상탐방로와 사계로야자매트탐방로↔목재계단길 일제진지동굴↔정상탐방계단↔서봉을 되돌아오는 둘레산책길이 있다.

정상탐방을 하기 전에 금산(거문고악 표고 63.5m)과 대정향교를 답사하고 정상탐방로에서 시달리고 지친 피로한 심신을 탄산온천에서 쉬게 할 수 있다. 단산사 초입은 야자매트, 억새길로 가볍게 시작하여 빌레를 타고 덩불을 헤쳐나가면서 등산의 진수를 보여준다. 7대 산 명성에 걸맞지 않는 산책로다. 오르미의 흔적은 언제였을까? 억새와 모시풀, 칠평굴에 더해 잡나무와 가시덤불들이 당연한 듯 등반길을 차지한지 오래고, 몸을 식혀줄 바람은 북벽 단애에 막히고, 얼굴을 감싸는 거미줄은 오싹함을 더하고, 뒤따르는 숙이의 길은 나아가지 못하니 낭패를 맞았다. 어깨끈 폭의 잔디밭 서쪽봉우리에서 콩알만한 간으로 본 아찔한 북서쪽 전망은 동쪽 봉우리에서는 좁쌀보다 더 작아진 간에 후덜거림으로 지척의 산방산과 송악산, 마라도, 가파도의 전망도 초점을 잃고 뭉개졌다. 하

단산-사계북로에서 보기



산길에 비하면 등성이길은 양반이구나. 급경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덩불과 잡나무는 희미한 하산길을 막고 해송은 매몰차게 밀치면서 허리충격, 손발 굽힘은 그나마 다행이다. 탄산온천을 나서며 뒤돌아보고 뒤돌아보았다. 단산은 황혼에 물들면서 어둠을 맞이하고 있었고 숙이와의 믿음과 사랑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향교로에서 단산자락 둘레길(임도, 농로)을 따라 탐방하는 이렇게 좋은 길을 두고 그땐 왜 그렇게 고생했는가? 도상훈련하듯이 지도만 믿었기 때문이다. 눈높이의 전망을 즐기면서 일제진지동굴에 왔다. 군산, 월라봉, 송악산, 동알·섯알오름의 진지동굴과 포진지, 알뜨르비행장까지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제주민들의 핍박한 삶이 녹아 있다. 타이어매트길에서 한걸음 목재계단은 높이를 더해가며 배꼽까지 채우고 눈높이가 되고서야 정상에 올라준다. 오늘은 또렷하다. 안덕, 대정의 해안선과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가 한식구처럼 오순도순 한눈에 들어왔다. 운 좋게도 토박이 오르미, 모자탐방객과 함께 전망을 즐기는 여유를 가졌다. 살짝 반질반질한 송이길을 들어서면 단산의 기목이 앙코르와트 따프롬사원을 밝히고 있는 비단목화나무가 된다. 둘레길을 돌아 나오면 사진틀 안 가장자리를 채우는 해송에 모슬봉의 석양이 붉게 물든 멋진 사진으로 남았다.



두벽이 일주서로 인성리(252,253,254번) → 탐방소 1.4km/탐방로 1.5km

승용차 대정읍 향교로 탐방로입구 노견주차

산방산 山房山, 높이 395m, 중상화산鐘狀火山(용암원정구)

높이 200m의 남서쪽 기슭에 있는 산방굴은 해식동굴海蝕洞窟로 부처를 모시고 있어 산방굴사라고도 하는데, 길이 10m, 너비 5m, 높이 5m 정도이다. 고려 시대의 고승 해일禪師이 수도했다고 하며, 귀양왔던 추사 김정희가 즐겨 찾던 곳이다. 굴 내부 천장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 산을 지키는 여신 산방덕山房德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 하며, 마시면 장수한다는 속설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산정에서 바라보는 마라도·형제도·화순항의 경관이 뛰어나며 이는 영주 10경의 하나(山房窟寺)다.

지금은 올레10길이 산방산뒷쪽(북쪽)으로 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순금모래 해변에서 썩은다리를 지나 산방산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며(지오트레일병행구간) 황우치해변을 지나 산방연대에 올라 남쪽바다를 조망하고 산방굴사에서 산방덕이를 만날 수 있었다. 새로 낸 올레길을 이용하면 북쪽사면 탐방길을 통하여 오를 수 있다. 가파른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 산방덕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 용암계단을 굽이쳐 올라야 한다. 잠깐잠깐 땀 흘리면서 쉬어 가며 돌아앉아 용머리해안 바닷물에 고단함을 풀어 묶게 한다. 인간으로 환생한 산방덕이가 노부부를 만난 곳에서 자식을 기원하고(생명기원의 장소), 산방덕이 눈물을 마시며 가족 건강을 기원하고(건강기원의 장소), 산방덕이 눈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에서 사랑을 기원하고(사랑기원의 장소), 명당터에서 부와 소원을 기원(명예기원의 장소)하면서 마침내 굴사를 마친다. 산방덕이에 합장하고 눈물 한방울에 기원하고 감사한다. 산방산과 산

산방산-월라봉에서 보기





송악산-탐방로에서 보기

방덕을 생각한다.

북쪽사면 세 개의 입출구 중 보덕사 옆 등산길을 통하여 정상탐방 후 서북쪽능선을 타고 내려왔다. 얼굴을 휘감는 거미줄을 건너며 몇 년 묵은 낙엽을 따라 걷는다. 시누대를 지나 물길에 모이는 능선 계곡을 치고 올라가는 용암길이다. 벌물도 잡고 산체도 보호하고 길도 내기 위해 요지마다 용암철망을 깔 것이 분화구가 없는 산방산의 특성에 잘 어울린다. 오르미만 없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용암은 구르고 가지는 부러지고 오르미는 미끄러진다. 겨우 공제선을 기준삼아 동백나무도 함께 웅기종기 모여 있는 정상에 올랐다. 해묵은 낙엽들 위로 차곡차곡 새로운 낙엽을 쌓으면서 쉬는 세월을 헤아리고 있다. 산방굴사 가는 길을 뺀히 이별하고 서쪽능선 흔적을 따라간다. 잡나무들을 받쳐주는 아찔한 용암절벽이 앞을 가로막으며 서북쪽 전망을 조금 보여주며 위로한다. 두 걸음 물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우뚝 솟은 용암바위(돌하르방바위)가 눈 한번 깜박거릴 만큼의 심표를 준다. 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걸음을 물려야 한다. 조각난 너덜바위와 잡목을 휘어잡은 덩굴이 길이 아님을 경고한다. 이 바위는 쌍둥이바위라 하자. 그렇게 큰 바위가 마주 보며 딱하니 버티고 서서 길을 막는다. 후들거리는 다리는 천길 낭떠러지임을 직감했을 모양이다. 천길 낭떠러지 맞다. 여러 걸음을 물리고서야 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덩굴 건너편으로 삼나무, 소나무숲이 기다리고 있다. 비집고, 젖히고, 뚫고 그렇게 가시덤불을 빠져나와 임도를 만나고 올레10길과 만났다. 수학 끝난 감귤밭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산방산을 쳐다본다. 정말 험하고 험한 곳을 내려왔구나. 돌하르방, 쌍둥이바위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부탁한다. 독자도 중요하지만 산방산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엉망이 된 등산복과 등산화, 장갑도 한마디 한다. 길로 다닙시다~.



뚜벅이 사계북로 산방산(251,202번)→ 탐방소/산방굴사 500m,

일주서로/화순로 덕수리군물왓(251,202번)→ 영산암 500m/1.8km

승용차 산방산공용-유료주차장(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송악산 松岳山, 해발 104m, 종상화산鐘狀火山

안덕 사계항에서 송악산 초입까지는 풍치 좋기로 소문난 해안도로가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애를 다지는 형제바위를 바라보며 걷는 형제해안로 그 길을 걸으면 송악산 입구에 이른다. 송악산은 한라산처럼 웅장하거나 산방산처럼 경치가 빼어나지는 않다. 그러나 송악산 순환탐방로를 걸으면 누구나 감탄사를 토해낸다. 앞에서 손짓하는 최남단의 마라도와 가파도, 형제섬, 우뚝 솟은 산방산, 멀리 보이는 한라산, 그리고 끝없는 태평양 바다를 씻겨온 바람과 해안단에, 능선으로 이어지는 푸른 잔디의 풋풋한 감촉과 곳곳한 해송의 자태가 그것이다. 송악산은 그 모양새가 다른 화산들과는 달리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으며 99개의 작은 봉우리가 모여 일명 구구봉이라고도 한다. 주봉을 중심으로 서북쪽은 넓고 평평한 초원지대이고 서너 개의 봉우리가 있다. 주봉에는 둘레 500m, 깊이 80m 정도 되는 분화구가 있고, 그 속에는 아직도 검붉은 화산재가 남아 있는데 정상부 식생복원과 탐방객 안전,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통제하는 것은(2020.7.31.) 아쉬움으로 남는다. 바닷가 해안 절벽에는 일제 때 뚫어 놓은 동굴이 여러 개 있어 지난날의 아픈 역사와 제주민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다.

송악산 입석에서 기념촬영하고 산방산 배경 포토존에서 멋진 풍경사진 한 장 간직하고 관광객을 따라간다. 산책할 수 있는 용암판, 시멘트포장, 송이길과 해안지형을 따라 가파르게 개설한 목책데크와 계단길이 해송산림욕장, 일제진지동굴, 부남코지, 제1,2,3 전망대를 이어주면서 송악산 정상·분화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송악산이 보여주는 바다전경과 아찔한 해안단에, 다양한 식생을 품은 울룩불룩 구구봉들을 감상할 수 있다. 바쁜 올레꾼을 만나면 잠깐이라도 함께하면서 송악산을 공유하면 탐방하는 재미에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뚜벅이 형제해안로 산이수동(752-2번)→ 탐방소 500m/순환탐방로 2.6km

승용차 마라도가는 여객선 주차장(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군산-올레8길에서 보기

군산 軍山, 군외, 굴메오름, 瑞山, 표고 334.5m, 2개의 풀바위

군산은 접근·조망·산책·삼박자를 갖추고 서귀포주민의 건강을 다져주고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주서로(1132번로)에서 상례동 소보리당로와 대평리 대평감산로를 통해서 정상 턱밑 안내소(예래, 대평탐방안내소)까지 승용차로 갈 수 있고, 두벽이는 군산을 바라보며 어느 쪽에서 오르든 군산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속삭임과 함께 하면 짜릿한 즐거운 마음으로 탐방할 수 있다. 정보보다 한 치 낮은 탐방안내소는 안내와 쉼터 기능에 더해 명품 감귤을 키우는 서귀포감귤원을 속삭까지 속속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해송 사이로 난 등정길은 나무계단, 아자매트, 타이어매트로 북·동·서쪽 봉우리를 삼각점으로 이어가면서 한라산남벽과 은빛 찬란한 서귀포전망을 일직선으로 보여주고, 일제진지동굴, 구시물(깃물), 부처손굴락지, 아기업계(업개)돌, 사자암, 금장지(禁葬地)를 따라가는 추억의길, 소망의길, 사색의길은 나무계단, 아자매트길, 역새길을 오르내리면서 군산의 면모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품은 얘기를 들려주며 탐방객의 발품을 모두 소진시킨다. 군산정상은 서귀포의 대표 산 고근산과 함께 서귀포를 말하고 있다. 한라산이 거느리고 있는 서귀포와 바다 쪽으로 펼쳐지는 오름들과 잔잔히 끝을 이어가면서 바다로 향하는 평온함이 정말 아름답다. 정상에서 맞아주는 군산의 바람과 파란 정경은 한가함 여유 그 자체다. 눈 가득, 마음 가득 군산을 담고도 남는 아쉬움은 사

진으로 남기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상례동·대평리주민들의 정성이 깃들은 탐방소에서 작별하였다. 들머리에는 활짝 핀 유채가 발길을 잡으며 마침표를 마쳐 찍고 가라한다. 동서봉이 서로 비껴 만나면서 만드는 군산의 손하트 모습  은 한라산 동서자락을 넘어올 때까지 어른거리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준다.



두벽이 일주서로 상예2동(202, 282번)→ 탐방소 1.2km/탐방 2km

대평리사무소(751-2번)→ 탐방소 2.5km/탐방 2km

승용차 군산탐방안내소(주차장, 쉼터, 화장실)

고근산 孤根山, 표고 396m, 원형분화구

영도폭포 찾아갔다가 고근산 탐방하는 관광객은 아마도 없으리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제주도는 물론 영도폭포도 고근산은 더 모르면서 명성만 듣고 온라인 정보만 믿고 탐방하면 그렇게 된다. 아예 올레7-1코스를 탐방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기로 하였다. 역시나 영도폭포(翁渡瀑布)는 엉뚱한 데가 있다. 왜 세계 4대 폭포에 들어가는지 가보면 안다.

임도를 따라 등산길을 따라 이런저런 산담·잣성을 넘고 숲길을 지나고서야 그곳에서 고근산 간세와 만났고, 잡목 사이 아자매트길에서 목재계단과 이어지며 조명등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분화구

고근산 서귀포전망대에서 본 서귀포 항



능선을 따르는 아자매트길은 사방 전망을 보여주고 수풀 가득채운 얇은 분화구로 발길을 유혹하나 올레꾼답게 고근산의 정취만 안고 보름모루길-고근산코스로 내려오면서 서귀포의 전경을 두 눈 가득히 채운다.

최근 제주혁신도시를 끼안으면서 낯선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위해 등산로와 산책길을 잘 조성하고 있다. 북쪽 자락에는 올레7-1길을 내주고, 반대쪽 남쪽에는 등하산탐방로를 내어 올레꾼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을이 한창 저물어 가고 있는 분화구는 역새 은빛물결이 일렁이면서 고요를 느끼게 하고 있다. 뒤쪽 우람한 한라산은 좌우로 오름들을 펼쳐 나를 감싸고, 앞쪽 서귀포 앞바다는 한점 한점을 찍어가면서 망망대해로 수렴해가고 있다. 한발짝 비켜 보면 한라산에서 남쪽 바다까지 이어지는 하늘선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곡선을 조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상 널찍한 전망대 평상과 긴 의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싱겁게 내려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오랜만에 벼슬 제주에서 고근산에서 만났으니 사람 사는 애기에 넘어가든 해도 귀 기울이다 한라산 서쪽 능선 자락에 걸터앉았다. 해송 사이로 반짝 반짝 애걸하는 서산해를 풀어주고 조금 완만한 올레길과 같이 하는 목책계단으로 하산하면서 하늘선을 바다로 바다로 이어주었다.

//////////////////// 
뚜벅이 중산간동로 고근산(640,641번)→ 휴게소 950m/정상-분화구탐방로 1.3km

승용차 고근산휴게소(주차장, 화장실)

영주산 瀛州山, 326.4m, 남동쪽으로 터진 말굽형분화구

영주산은 제주도의 7대 산 중 제일 동쪽에 있는 산으로 송악산, 산방산, 단산, 군산, 고근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들머리에서 탐방로까지 가는 길도 잘 포장되어 있다(1.4km). 성읍민속마을답게 예쁜 토박이 이름들을 가진 구경하는 집들(민속식당)을 구경하며 조금 지루하다 싶을 때 탐방로 입구에 왔다. 입구 철계단을 올라서자마자 산불경계에 대한 안내말에 깜짝 한번 놀라고, 목책계단을 따라 동쪽으로 터진 분화구 자락의 초소 내부 벽화를 이해할 수 없어 가우뚱하고, 끝이 있는 듯 없는 듯 천국으로 향하는 것 같은 목책계단이 등성이까지 이어져 있음에 한 번 더 놀랐다. 정상-분화구 능선을 따라 조성한 아자매트탐방로를 따라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정상을 지키고 있는 두 개의 초소에도 가우뚱한다. 동쪽 분화구 쪽은 성산을 위해 모두 비웠고 서쪽사면 자락에는 이 가뭄에 물 가득한 은빛 저수지(가매소) 너머로 성불, 비치미, 개오름이 목을 축이고 아지랑이 따라 백약이오름→궁대악→대왕산이 일출봉까지 이어지면서 끝내 마침표도 찍지 못하고 바다 품에 안겼다. 오름자락과 정상과 좌우능선과 분화구는 시간여행으로 변화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식생들을 키우고 있으나 탐방과 목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려오는 8부 능선 아자매트갈림길은 뚜벅이 등산객을 위한 길인데 왜 그리 가지 않았는지 후회하면서 순환탐방로로 향했다. 삼나무숲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한 무리의 제주소와 같이 쉬면서 영주산을 그렸다. 영주산은 원래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신선이 살아 신령스럽다고 하여 영모루 또는 영머리라고 했다. 이것을 한자

영주산에서 본 북서쪽 전경



로 영지瀛州로 표기한 뒤 영주산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분화구 동쪽 안사면의 능선에는 용암노두가 노출되어 있고 동쪽기슭에는 동쪽으로 터진 소형분화구가 떨어져 있으며 오름 전체에 걸쳐 역사가 우점優占하고 있다. 영주산 서녘기슭을 흐르는 천미천에는 가매소라는 못이 있다.



두박이 표선면 성읍리(221,222번) → 탐방소 1.4km/순환탐방로 2.2km

승용차 탐방소 입구 빈곳

두력산

가파도에서 명명되는 7대 산과는 별도로 제주 물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의 창조신화에 따라 신성시되어 온 한라산은 제외하고 오름인데 산 인척하는 다섯 개의 산을 5대 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중앙의 한라산, 성산의 청산(일출봉), 표선의 영주산, 안덕의 산방산, 구좌의 두력산이 그것이다. 사실 두력산은 산이라 하기보다는 바다 작용과 함께하는 전설어린 용암이라 할 수 있다. 두력산은 이렇게 여긴다. 두력산은 한라산과 서로 대對가 되는 산이라 한다. 한라산은 영산이어서 운이 돌아오면 장군이 난다고 하는데 한라산에서 장군이 나면 두력산에서는 이 장군이 탈 용마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두력산을 신성한 용암으로 생각해서 그 가까이에는 언동을 조심한다. 만일 해녀가 바다에 나갔다가 이 두력산에서 큰소리를 지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 곤경에 빠진다고 한다. 옛날 설명주할망



두력산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청산을 밟고 앉아 이 두력산에 빨랫감을 놓고서 빨았다고도 한다.

해맞이해안도로를 곁에 두고 올레20길, 김녕·월정지질트레일코스, 제주환상자전거길(김녕세기해변길)을 탐사하면서 무주연대無注烟臺, 투몰러스Tumulus, 환해장성環海長城, 빌레길, 성세기태역길, 김녕성세기해변의 풍경화와 풍력발전기들의 날갯짓과 예쁘게 단장해 놓은 섬터들의 유혹에 한눈팔면 집중팔구는 만날 수 없는 산이다. 간혹 올레꾼은 만남을 기약할 수 있다. 김녕해변 근처 덩개해안에서 간조물때를 만나면 만날 수 있다.



두박이 김녕해수욕장(201번) → 탐방소 1.3km

승용차 김녕해수욕장 아영장주차장(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광치기해변에서 보는 일출봉

청산 靑山, 日出峯, 높이182m, 정상분화구

올레길을 걸을 때나 오름을 탐방할 때나 섬 속의 섬을 갈 때나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제주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이다. 수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한라산과 함께 제주에서 현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청산보다는 관광객의 일출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근래엔 일출봉 연계관광 우도에서 우도 연계관광 일출봉으로 자리를 내 주는가 싶더니 그 사람들(유커游客) 뜸하니 잠시 잊었던 일출봉의 명성은 여전하다. 등산 전이나 하산 후나 성산일출봉입석과 유네스코3관왕안내석은 한라산 백록담입석 만큼이나 줄 세우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락에서부터 등하산길을 분리한 것이나 산책로를 따로 조성한 것을 알면 성산일출봉을 애지중지 탐방해야 한다. 올레길에서 우도를 갔다 와서 오르든, 섭지코지에 왔다가 성산오조지질트레일에서 유채밭에 왔다가 들리는 성산 일출봉일지라도 일출봉은 영주십경城山日出,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의 어엿한 모습 그대로 모두를 품어준다. 용암길을 따라 본격적으로 목재계단을 올라야 한다. 십여 분이면야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설문대할망께 두 번 김통정 장군께 두 번 절하고 지나가야 하는 등경돌(燈檠石정경돌), 화산재층 침식으로 생긴 독특한 바위(奇石)들과도 만나서 거친 숨도 고르고 가야 한다. 동해로 시야를 틔워주는 정상에 오르면 전망나무데크에는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이 스쳐 갔고 또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이 스쳐 갈지 모르기에 시공간도 전망도 일출봉에 따라야 한다. 하산하는 목재계단은 등산하는 목재계단보다는 덜 사나운 모습이다. 항상 위치와 방향잡이 역할만 했던 일출봉이 보여주는 성산의 참 전망은 정말 일품이다. 섭지코지를 이어주는 광치기해변과 대수산봉-대왕산-두산봉-지미봉으로 펼쳐는 오름군과 식산봉을 품은 오조·성산포구가 눈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편하고 안전한 하산으로 탐방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을 만들어 준다.



두벽이 성산일출봉 입구(111,112,211,212,201번) → 탐방소 370m/탐방로 1.5km

승용차 성산일출봉 해양도립공원 주차장(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버친일은 수왕합씨

힘든 일은 나눠 해요.

제주음식 : 오메기떡은 제주에서 차조가 많이 나는 가을에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 좁쌀[오메기]가루를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직경 5cm 정도의 도넛모양으로 만들어 둥글게 빚은 다음 삶아 김이 나간 후 콩고물이나 팔고물 등을 묻히거나 찬 물에 씻어 꿀을 묻혀 먹기도 한다. 오메기떡은 간식으로 먹기 위해 만들기도 하지만 이 떡에 누룩 가루를 버무려 항아리에 넣어 두면 오메기술이 된다. 전통의 맛과 현대인의 입맛을 맞추어 팔·쌔앗·콩가루·흑임자 고물 떡이 입맛을 다시게 한다.



제주명소

섭지코지와 광치기 해변 유채꽃 : 물에서 천바람 땀뻘 불며 겨울이 한창일 때 제주는 겨울자락을 놓고 봄을 시작하고 있다. 제주 동쪽 광치기해변에서 섭지코지까지 이어지는 해변가에 조성된 유채꽃밭에서 봄소식으로 유채꽃 향기를 바람에 실어 서쪽으로 보내면 복수초가 오름을 깨우고, 겨울을 지켰던 동백꽃은 매화에 자리를 내어주고 들에는 예쁘고 고운 고사리가 자리하고 산과 들에는 온통 벚꽃과 수국으로 마무리하는 제주꽃축제가 시작된다. 무료 공설보다는 유료 사설 유채꽃밭이 고맙기는 하지만 돈 행기는데 만 열중이라 도로와 꽃밭에서의 안전은 뒷전임에 유의하면 별 구경거리 없는 정이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인기장소임에는 틀림없다.



광치기해변 유채꽃밭



섭지코지

남쪽 해안 길을 따르면 중간중간 노란 유채꽃들도 보이고 혹은 언덕 위 풀밭에서 유유자적 풀을 뜯는 제주 조랑말의 목가적인 풍경을 스치면(2.5km) 끝없이 아련한 제주바다를 만난다. 그런 다음 붉은송이로 이뤄진 붉은오름에서 만나 섭지코지가 보여주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얀 등대, 노란 유채꽃밭, 붉은오름과 파란 하늘, 푸른 바다가 대비되는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등대전망대에서선 사랑의 전설을 담은 섭지코지해안절경과 슬픈 짝사랑의 전설이 어린 선녀바위 포토존에서 아름다운 추억 담는 것도 잊지 말자.

옥색 제주바다가 유혹하는 한여름, 7개의 유인도와 5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섬 속의 섬으로 떠난다. 단지 조금 큰 섬에서 작은 섬으로가 아닌, 이름을 간직한 섬, 낯선 곳으로 떠나는 섬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가슴 두근 두근거리는 섬 속의 섬 탐방을 떠난다. 🌊